

# 텔레비전 뉴스의 비판적 시청과 국어교육적 함의\*

김정자\*\*

## 1. 들어가는 말

텔레비전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텔레비전이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친구들과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텔레비전에서 정보를 얻고, 오락 거리와 즐거움을 얻는다.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9시 뉴스를 보거나 뉴스가 끝난 후 드라마를 보는 것은 어느 보통 가정의 모습이다. 다음 날 사람들과 텔레비전에서 본 것을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방송 뉴스의 사회적 위력은 신문이나 잡지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우선 뉴스를 접하는 사람의 수를 보면 저녁 9시 뉴스의 경우 어림잡아 800만에서 1,000만의 시청자가 KBS나 MBC 뉴스를 보는 것으로 추산된다. 두 방송을 합치면 적어도 1,500만의 사람이 매일 저녁 뉴스를

---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2000)의 연구원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국어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시청한다. 대부분 1분 20초 짜리 기사이지만 한 번에 천만 명 가까운 사람에게 뉴스를 전하는 일은 많아야 200만 부 정도를 찍는 신문 기사의 경우와는 사회적 영향력에서 커다란 차이를 갖는다(이재경·김학희, 1998:14). 더구나 신문이나 잡지는 굳이 구하거나 찾아서 보아야 하지만, 텔레비전은 스위치만 켜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매체인 것이다.

텔레비전의 다른 프로그램 유형, 특히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는 지나친 오락성과 선정성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뉴스 프로그램은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특히 텔레비전 뉴스는 영상과 결합하여 그 객관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진 이미지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대한 보편적 믿음이 텔레비전 뉴스의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류할 때 크게 논픽션 장르와 픽션 장르로 나눌 수 있는데, 뉴스는 다큐멘터리와 함께 논픽션 장르를 대표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따라서 흔히 우리는 텔레비전 뉴스가 사회적 실재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한다. 드라마나 코미디 등은 실제 세상을 다루지 않고 허구의 세상 혹은 만들어진 세상을 다루는데 비해 뉴스는 실제 세상, 있는 그대로의 세상, 미가공적 세상을 다룬다고 믿는 것이다(원용진, 2000:230).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를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 텔레비전 뉴스도 드라마와 같이 제작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시각이 바로 그것이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보이는 사회적 현실은 결코 원래의 사회적 현실이 아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건을 복원하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은 복원된 사건일 뿐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현실이 객관적으로 전달된다든지 하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원용진, 2000:233~235).<sup>1)</sup>

1)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대체로 두 개의 축 위에서 이루어져 왔다. 첫째는 텔레비전 뉴스는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이는 거울이며 최소한 그렇

매스 미디어를 ‘세계를 향한 창’이라고들 한다. 우리가 모르거나 가보지 못한 다른 세상의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창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창문의 크기에 따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세계의 크기는 제한될 것이고, 창문의 색깔에 따라 사물의 모습도 달라 보일 것이며, 무엇보다도 창문을 통해 보는 세계는 실제의 세계가 아닌 것이다.

텔레비전 뉴스도 마찬가지이다. 텔레비전 뉴스는 카메라를 통해 사건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자의 관점이나 편집자의 태도, 그밖에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뉴스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시청자들은, 텔레비전 뉴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여야 하며, 뉴스의 객관성과 공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나서, 텔레비전 뉴스를 비판적으로 시청하는 한 방법으로 텔레비전 뉴스의 언어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 2. 텔레비전 뉴스의 일반적 특성

### 1) 뉴스의 선택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보도

---

게 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경향과 나머지는 “텔레비전 뉴스란 어떤 한 형태로든 사회적 현실 속의 사건, 사고 인물 등에 관한 사실들 중에서 선별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이른바 구성된 현실을 내보내는 것”이라는 관점이다(김홍규·이종민, 1999:5).

란 '특정한 기준으로 선택된 뉴스를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택된다. 즉 그 사건이나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장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6가지 기준으로 삼는다. 즉, 시의성, 근접성, 기능성, 보편성, 저명성, 흥미성이다(윤재홍, 1998:65~70). 또 갈통(J. Galtung)과 루즈(M. Ruge)는 뉴스거리 중 최근의 것, 엘리트와 관련된 것, 부정적인 것, 놀라운 것 등이 뉴스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원용진, 2000:236).

선택이란 말에는 항상 가치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뉴스를 누가 선택하는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가? 이 선택에는 뉴스 제작자들의 가치관, 그리고 사회의 가치관, 매체의 특성 등이 작용한다. 선택된 뉴스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 판단이 적용되어 있다. 어떤 뉴스를 길게 방송하는가? 어떤 뉴스를 처음에 배열하는가? 즉 뉴스의 길이와 배치에서도 어떤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 2) 텔레비전 뉴스 기사의 유형

방송 기사의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로 나눌 수 있다. 방송뉴스에서 의견 기사는 논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논평은 방송사나 해설위원이 주관적인 분석과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실보도는 역피라미드 기사쓰기의 틀로 만들어지는 스트레이트 기사와 취재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서사적 구조를 갖춰 전달하는 리포트 기사로 나누어진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길이가 통상 3, 40초인 데 반해 리포트는 1분 20초 정도로 길다. 스트레이트 기사는 전달할 정보를 중심으로 건조하게 작성되지만, 리포트 기사는 사실을 보는 관점이나 기자의 성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리포트 기사가 방송될 때 앵커는 앞에서 '…… 내

용을…… 기자가 보도합니다'라는 유도멘트, 즉 앵커멘트만 읽는다(이재경, 김학희, 1998:17~20). 따라서 리포트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길고 비중이 큰 뉴스로 취급된다.

리포트 기사에서 앵커 보도와 기자의 보도는 기능상으로 구분되는데, 앵커의 보도는 기자의 보도 내용에 앞서 시청자들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을 통해 기자의 보도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리포트 기사 전체에서 앵커 보도는 도입부의 성격을 띠고, 기자의 보도 내용은 본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자의 기술 내용, 평가, 해설, 태도 등은 뉴스의 내용과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되는데, 이 때 인터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도 시청자들의 뉴스의 내용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3) 텔레비전 뉴스 언어의 특성

텔레비전 뉴스는 말과 그림(영상, 그래픽, 문자자막 등)으로써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텔레비전 뉴스는 앵커와 기자, 인터뷰 대상 등의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시·청각적 이미지가 함께 제공되어,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형성시켜 주고, 신문기사보다 뉴스 내용의 이해 가능성과 흥미도도 높다.

신문의 기사와 텔레비전의 뉴스 기사를 비교할 때, 신문은 기사는 길며,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데 비해, 텔레비전의 기사는 짧고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 요점만 전달하므로, 흔히 텔레비전의 정보량은 신문보다 적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십, 수백 마디의 말로 전달해야 할 정보를 한 장의 사진으로 전달할 수 있다. 한 장의 사진이 아닌 여러 수십 장의 사진을 연결한 영상물은 그 정보량에 있어 신문의 문자와

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텔레비전의 정보량이 적다고 주장한 배경을 살펴보면 텔레비전의 정보량을 보도문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의 뉴스에서는 그래픽과 영상물 등 시각적인 자료도 하나의 정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윤재홍, 1998:198~202). 영상이나 그래픽 같은 시각 자료는 텔레비전 뉴스의 사실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 주면서, 한편으로는 기자의 관점이나 해석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기사의 의미 내용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기호는 앵커나 기자의 말이다. 시청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앵커나 기자가 전하는 말을 통해서 뉴스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내용을 보고해야 하므로 기자는 전달해야 할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기자의 판단에 따라 동일할 사건일지라도 보도의 내용에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시청자는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신문의 기사문은 또 읽을 수 있지만, 텔레비전의 뉴스는 반복해서 보거나 들을 수 없다. 텔레비전 뉴스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반복성이 무(無)라는 점 때문이다. 또한 시각적인 자료 제시에 현혹되는 것도 텔레비전 뉴스를 무심히 수용하게 되는 한 이유이다.

본고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의 비판적 읽기의 한 방법으로 텔레비전 뉴스 기사문을 언어사용의 방식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sup>2)</sup>

2)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뉴스를 담는 형식 또한 중요하다. 텔레비전 뉴스가 라디오 뉴스나 신문뉴스와 다른 특징은 뉴스의 내용을 담는 형식 때문이다. 앵커나 기자의 음성 언어 즉 말 이외에 영상언어와 음향 효과 등의 뉴스의 형식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는 것은 본고의 한계이다.

### 3. 텔레비전 뉴스 기사의 언어적 분석

#### 1) 언어 요소의 선택

언어의 사용은 선택을 수반한다. 화자의 모든 선택이 자신의 관점이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을 크게 어휘소의 선택, 통사적 구성, 텍스트 구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텍스트를 생산하려면 어휘소를 선택하여 문장을 구성해야 한다. 즉, 텍스트 구성은 어휘의 선택이나 통사 구성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단어가 모여 문장, 문장이 모여 텍스트를 구성하므로, 표현 태도 제시의 방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한 선택에는 화자의 태도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화자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낱말도 있고 간접적으로 드러내거나 거의 드러나지 않는 낱말도 있다. 이러한 낱말들이 모여 문장을 이루고 텍스트를 형성하면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지닌 낱말이라든지 호오(好惡)의 뜻을 지닌 낱말들은 화자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다음의 세 텍스트를 어휘의 사용 면에서 비교해 보자.

(가)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신라 왕족인 김춘추와 자기 여동생을 결혼시켜 **이상**을 이루었다.

(나)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야심**이 컸다. 그는 신라 왕족인 김춘추와 자기 여동생을 이용하여 자기 **야망**의 길을 텃다.

(다) 김유신은 삼국 통일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는, 신라 왕족인 김춘

추와 자기 여동생의 혼인으로, 사돈관계를 맺었다(이대규, 1995:64~67).

(다)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즉 (다)를 중립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본다면, (가)는 김유신에 대해 긍정적, 우호적 태도를, (나)는 필자가 대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가)의 '희망', '이상'이라는 단어의 선택과 (나)의 '야심', '야망'이라는 단어의 선택을 통하여 확연히 드러난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정확한 의미의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연적 정확성과 내포적 정확성을 가려 선택해야 한다. 동의어라 해도 감정적 무게나 도덕적 가치는 다르다. 단어의 외연적, 내포적 의미를 정확히 가려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성이나 비공식성(혹은 격식성이나 비격식성)의 단계를 조절할 수 있고 주관성이나 객관성의 단계도 조절할 수 있다.

청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 화자는 낱말을 외연적 차원에서 사용한다. 명료한 의사 전달, 곧 특수한 사실을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전달하려는 특수한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 해석을 보류해야 한다. 따라서 화자는 내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문맥과 낱말 선택함으로써 그러한 해석을 제한해야 한다(이승훈, 1995:182).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즉 문장에서 단어를 어떻게 배열하느냐, 조사와 어미는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등에 따라서 필자의 태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 (1) 영희가 밥을 다 먹었다.
- (2) 밥을 다 영희가 먹었다.



(1)과 (2)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는 같으나 그 어순에 차이가 있다. (1)과 (2)는 [영희가 밥을 다 먹었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 사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명제적 의미에는 차이가 없으나 감정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우리말에서는 단어들이 정상적인 자기 위치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할수록 의미적으로 강조된다.

(3)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4) 해냈다, 우리가 드디어!

예를 들면 정상어순이 아닌 (4)에서 필자의 심적 태도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어순의 뒤바뀜은 전체 텍스트의 문장 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아야 한다. 뒤바뀜 문장을 많이 사용할 경우, 정상어순의 문장과의 대조를 통해 나타나는 강조나 감탄의 효과를 잃어버리게 된다.

문장 종결형은 단순히 문장을 종결시키는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장 종결형은 문장에 담긴 명제내용에 대한 발신자의 견해나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문장 종결어미와 조사의 선택도 그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주절과 종속절의 구성에서도 주절에 있는 정보가 종속절의 정보보다 좀더 전경화(foreground)된다.

(5)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6) 한 길 사람 속은 몰라도 열 길 물 속은 안다.

(5)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종속절과 주절의 위치가 바뀐 (6)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휘 선택과 통사적 구성을 통한 표현도 중요하지만(이것들이 모여서 전체 텍스트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텍스트의 구성을 통해서도 필자의 견해나 입장이 드러날 수 있다.

텍스트의 여러 요소들의 관계에 대한 모든 지각은 직접적으로 필자의 것이다. 필자는 표현 내용 및 상황 속의 요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각한다. 그러한 지각의 내용은 실제 담화의 상황과 다를 수 있으나, 텍스트에 반영되는 내용은 필자에 의하여 지각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다양한 텍스트 구조의 실현은 실제 담화 상황의 요소들의 관련성을 보여주 기보다는, 필자가 지닌 심적인 태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텍스트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즉, 정보는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될 수 있다. 서술자가 담화가 일어나는 장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 있으며, 어른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다. '관점(perspective)'이란 용어는 사건을 보는 다양한 지점들을 기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영화기법으로 비교한다면 카메라의 위치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화자가 무엇을 관찰하는 데는 관측 위치와 방위의 두 개념이 필요하고, 어떤 사물이나 관계를 묘사할 때 관찰자는 자신의 실제 위치에서 이들을 묘사하거나 실제 위치가 아닌 주어진 상황 속의 어느 지점에 자신을 옮겨 놓고 관찰할 수가 있다. 즉, 필자는 실제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택하여 어떤 관계를 묘사할 수 있다.

정보를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양과 정보의 배열 위치도 화자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화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텍스트의 처음에 제시할 수도 있고 혹은 텍스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시할 수도 있다. 텍스트에서 제시하는 정보의 양도 마찬가지이다. 화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많이 제시하게 된다. 또한 화자가 대상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부정적 정보는 긍정적 정보보다 적게 제시되거나 거의 제시되지 않는다.

텍스트 수준에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리하자면 화자의 태도를 (1) 정보를 어떤 관점에서 표현하느냐, (2) 어떤 정보를 얼마나 제시하는가, (3) 정보를 텍스트의 어느 위치에서 제시하는가에 따라 나타낼 수 있다.

## 2) 뉴스 기사문의 언어적 분석

2001년 5월 25일 방송된 MBC, KBS, SBS 세 방송국의 텔레비전 뉴스 텍스트를 언어 사용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용된 뉴스 텍스트는 MBC 9시 뉴스와 KBS의 9시 뉴스, SBS의 8시 뉴스에서 보도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것이다.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기사는 모두 리포트 기사로서 세 방송국 다 세 꼭지의 리포트 기사를 보도했다.

### MBC 뉴스

#### ① <단계적 개발>

앵 커 : 개발강행과 중단을 놓고 찬반 논란을 벌여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 강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동진강 수역부터 먼저 개발을 하고 만경강은 수질상태를 파악하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순표 기자입니다.

기 자 : 새만금 사업에 대한 최종 결론은 강행하되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지금까지 수많은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

을 내림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기 자: 정부는 우선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33km 가운데 이미 완공된 19km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 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나온 이후에 개발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동진강 수역은 바닷물을 완전히 막아 갯벌을 농지로 만들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개선될 때까지 수문을 통해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놔둔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단순한 농지조성 방식에서 탈피해 생태마을과 조류 서식지 등 자연친화형 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9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뒤 **술한 찬반 양론을 겪어왔던** 새만금 사업이 2년여 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② <쌀생산 늘지만...>

앵 커: 새만금 간척사업이 끝나면 넓은 간척지가 생겨서 쌀 생산이 늘어나고 관광산업효과도 크다고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갯벌 파괴로 인한 환경 손실이 막대하지만 정부는 개발쪽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애 기자입니다.

기 자: 바다를 가르며 뻗어 있는 길,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총 33km 가운데 19km가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현재 방조제 공사는 중단됐고, 보수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모두 간척이 돼서 농경지가 되면 연간 14만 톤 그러니까 국민 15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280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담수호에서 생기는 물 5억 3500만 톤과 관광효과까지 따지면 수 조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관광효과가 950억, 기타 재해방지 논의 공익적 기능 등 인근 개발 효과가 등을 포함해서 한 6300억, 이것을 포함해서 1조, 전체적으로

4조 4000억의 순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 자 : 그러나 새만금 방조제 완공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8%, 2만 800ha(헥타르)가 사라집니다. 새만금 간척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3조 1000억 원으로 **조성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 : 조성 원가로 말하면 땅 한 평당 한 7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현재 땅 시가가 2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결국에는 경제성이 없는...

기 자 : 농림부는 내년부터 방조제 추가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04년에는 계획대로 방조제 33km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동애입니다.

### ③ <전북도민 “환영”>

앵 커 : **새만금 사업 재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전주의 이종후 기자입니다.

기 자 :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기다려 온 전북 도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인터뷰 : 공사를 이렇게 해 놓고 안 할 수 없다 하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심의 결정이 아니냐...

인터뷰 : 어차피 공사를 추진을 했으니까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 자 : 방조제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벌어진 그 간의 논쟁이 마침내 끝난 것에 대해 반가운 한편으로 아쉬움도 털어놓았습니다.

인터뷰 :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빨리 해서...

기 자 : 환경단체가 요구해 온 것처럼 담수호의 수질 악화를 막고 반드시 친환경적인 개발이 돼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앞으로 문제가 됐었던 환경친화적인 문제적 사고를 가지고 재개 해서 공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 자 : **반면에 지역 환경단체는 정부의 결정과 관계없이 앞으로도 반**

## 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 ① <새만금 사업 재개>

앵커(남)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여) : 5월 25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앵커(남) : 환경과피 논란으로 중단됐던 전북 새만금 간척사업이 2년만에 재개됩니다. 먼저 오늘 확정된 정부 방침을 김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 2년이 넘는 조사와 연구 검토 끝에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해 순차 개발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먼저 19Km만 건설된 채 중단된 방조제 공사를 재개해 2004년까지 33Km 전 구간을 완공합니다. 이어 수질문제가 없는 동진강과 만경강을 분리하는 독을 쌓은 뒤 2008년까지 동진수역을 개발합니다. 나머지 만경수역은 갑문으로 바닷물을 유통시켜 수질을 관리하면서 수질개선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환경개선사업에만 2011년까지 환경보전 사업에만 모두 1조 4500여 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터뷰 : (나승포 국무조정실장)중앙정부의 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와 지역에는 전라북도에 수질보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기 자 : 정부는 이번 사업재개를 계기로 새만금 이외에 서남해안 갯벌 보전을 위한 별도의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

### ② <새만금, 150만 명 1년 식량확보>

앵 커 : 그러면 이 새만금사업이 가져올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계속해서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 푸른 바다를 둘로 가르는 길, 새만금방조제입니다. 33km를 이어야 하지만 더 이상 뻗지 못하고 뚝 끊긴지 2년. 이제야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헬기는 방조제와 육지 사이를 날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바다지만 오는 2004년 방조제가 모두 완공되면 이곳이 농경지로 조성됩니다. 나중에 개발될 만경수역까지 합해 만들어질 농경지는 2만 8300ha. 이곳에서는 해마다 14만 톤, 그러니까 150만 명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쌀이 생산됩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22만ha의 농경지가 줄었고 식량 자급률도 43%에서 29%로 떨어져 새만금사업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또 저수지 200개에 해당하는 1만 1800ha의 담수호가 조성돼 가뭄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김동근(농림부 차관) : 전체적으로는 4조 4000억 원의 순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기 자 : 세계 최대의 방조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관광효과도 기대됩니다. 새만금방조제보다 0.5km 짧은 네덜란드 주다치 방조제는 연간 관광수입이 약 11억 달러에 이릅니다.

박석순(이화여대 교수) : 담수호를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해안 관광단지로 활용한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기 자 : 군산-부안간 거리도 66km가 줄어 이동시간도 1시간 반 이상 단축됩니다.

KBS뉴스 구영희입니다.

### ③ <새만금, 기대와 우려 엇갈려 >

앵 커 : 정부의 오늘 결정에 대해서 특히 전라북도 도민들은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워낙 강력해서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보도에 천희성 기자입니다.

기 자 : 정부의 최종 결정에 전라북도 도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이 완성되면 전라북도가 서해안 시대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전주 시민: 수억 원을 들였는데 그만두면 국가 손해니까 계속 추진해야죠.

기 자: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사업 강행이 반생명, 반민주, 반인권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정부 관련단체의 모든 직책을 사퇴하고 오늘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민간단체가 정부와 합의해서 재조사를 했는데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기 자: 전국의 200여 개 환경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각계 대표 1400여 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새만금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서울역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전북지역 어민 등 20여 명은 세종로에서 가두행진을 하다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천희성입니다.

## SBS뉴스

### ① <새만금 사업 다시 추진>

앵 커: 사업재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공사 중단 2년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먼저 최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 자: 바닷길 33킬로미터를 막아 여의도 140배에 이르는 농지와 담수호를 만들겠다는 새만금 사업. 지난 91년 1월 착공한 뒤, 99년 4월 환경 문제로 잠정 중단됐던 공사가 2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정부는 우선, 2004년까지 군산에서 부안까지 방조제를 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진강 수역을 먼저 개발해 2008년까지 간척 사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수질 오염 우려가 제기된 만경강 수역은 수문을 열어 놓고 수질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나승포(국무조정실장): “미래의 식량위기와 통일에 대비한 우량 농지 조성은 중요한 국가경영 전략의 하나라고 판단”

기 자: 정부는 새만금 유역 환경개선을 위해 1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생태 마을과 조류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순차 개발 방안은 정부의 개발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감안한 **교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SBS 최원석입니다.

## ② <새만금 사업, 진통 예상>

앵 커: 정부가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수질과 갯벌보전 같은 주요쟁점도 아직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 자: 정부가 순차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또 다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용배 한영대 교수(물관리 민간 자문위원):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안 자체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 자: 시민환경단체는 국민을 기만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규현 신부(새만금 생명연대공동대표): “만약 이러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 환경 시민단체는 정부와의 어떠한 협력도 거부할 것입니다.”

기 자: 2년 가까이 끌여온 쟁점 사항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질입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조사 결과 앞으로 1조천억원의 예산을 들여도 새만금의 수질은 5급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모든 대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더라도 화학적산소요구량 즉 COD는 8.9ppm, 총인은 0.153ppm으로 예상됐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부적합한 수치입니다.

갯벌의 가치와 경제성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환경단체들은 갯

벌의 가치가 농지의 백배나 된다는 주장이지만 정부는 농지의 이익이 갯벌보다 3.8배나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SBS 서상교입니다.

③ <간척현장 검토>

앵 커 : 새만금 사업은 이미 1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김선길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 자 :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새만금 간척 현장입니다. 가력도를 거쳐 신시도를 향해 뻗어가던 방조제가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총 연장 33킬로미터의 방조제 공사는 이렇듯 중간 중간이 끊기면서 거센 파도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정한수(농업기반공사 공무부장) : “흙이 쓸려가는 걸 막으려고 25미터 두께로 바위를 넣었다.”

기 자 : 바다 위에 설치돼야 할 준설용 대형 파이프도 붉은 녹을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5층 건물높이의 거대한 배수갑문은 간척 사업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방조제 바깥으로는 어느새 새 흙이 쌓이고 있습니다.

임채신(새만금사업단장) : “여기 방조제 완성된 지 2년 됐는데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다.”

기 자 : 이제는 관광코스가 돼버린 방조제 한편에선 사업계속을 외치는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주머니) : “하다 만 건 시작했으면 해야지...”

기 자 : 환경보호 시위를 주도했던 NGO 사무실은 인적이 끊겼지만, 갯벌에 줄지어 서있는 장승들은 아직도 새만금 사업 철회를 외치는 듯합니다. 2년 동안 찬반 격론 끝에 사업계속이 결정된 만큼 이제는 시화호와는 달리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선길입니다.

MBC 뉴스① 단계적 개발, ② 쌀 생산 늘지만……, ③ 전북도민 “환영”

KBS 뉴스① 새만금 사업 재개, ② 150만 명 1년 식량확보, ③ 기대와 우려 엇갈려)

SBS 뉴스① 새만금 사업 다시 추진, ② 새만금 사업 진통 예상, ③ 간척 현장 검토)

먼저 각 뉴스에서 선택된 어휘를 살펴보자. 새만금 간척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었다는 개략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①의 기사를 살펴보자. MBC 뉴스에서는 ‘강행’, KBS 뉴스에서는 ‘재개’, SBS 뉴스에서는 ‘추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강행’이라는 단어는 ‘재개’와 ‘추진’이라는 어휘에 비해 부정적인 내포를 지니고 있다.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MBC 뉴스와 KBS 뉴스 ②에서 사용된 어휘를 살펴보자. KBS 뉴스에서 ‘경제적 효과’라는 말이 전체 보도를 대표하지만, MBC 뉴스에서는 ‘쌀생산 늘어…’, ‘관광산업 효과…’라는 말 이외에 ‘환경손실, 조성비용 지나치게 많이…’라는 부정적인 말들이 사용되고 있다.

기사 ①의 텍스트 구조를 살펴보면, 각 방송사의 뉴스는 텍스트 처음에 새만금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정보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마지막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MBC 뉴스는 텍스트 처음의 “개발강행과 중단을 놓고 찬반 양론을 벌여온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개발 강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라는 앵커의 말과 텍스트 마지막의 “솔한 찬반 양론을 겪어왔던 새만금 사업”이라는 기자의 마무리 말이 둘 다 부정적인 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KBS 뉴스는 텍스트 마지막에 “서남해안 갯벌 보전을 위한 별도의

종합계획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정보로 끝을 맺고 있다. SBS 뉴스에서는 텍스트의 마지막에 “순차 개발 방안은 정부의 개발 방침을 고수하면서도 환경 문제를 감안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의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MBC 뉴스와 KBS 뉴스를 살펴보면,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 다름을 알 수 있다. MBC 뉴스에서는 개발효과와 함께 막대한 조성 비용을 함께 언급해서 시청자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터뷰도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는 내용과 조성비용에 비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비해 KBS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만 언급했다. 인터뷰도 정부관리와 대학교수가 새만금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한 내용을 담았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반응을 보도한 MBC 뉴스 ③, KBS 뉴스 ③, SBS 뉴스 ③을 살펴보면 각기 제시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름을 알 수 있다. MBC 뉴스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에서 텍스트를 구성했다. 텍스트의 마지막에 지역 환경단체가 반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정보를 제시했지만, 텍스트 전체에서 새만금 사업 재개를 환영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주로 해서 기사를 구성했다. 전체 4개의 인터뷰 중 마지막 인터뷰에서 환경친화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그것 역시 새만금 사업을 환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만금 사업을 환영하는 논리적이거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둘은 어차피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는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한 것이었다.

KBS 뉴스에서는 전북도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강력해서 파문이 계속될 전망임을 밝히면서 인터뷰도 전주 시민과 환경단체 대표 두 사람의 말을 전했다. SBS 뉴스에서는 지역 주민의 환영에 대한

정보는 없고 환경단체의 반발과 주요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뷰도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두 사람과 했으며, 텍스트의 마지막에도 수질 보전과 갯벌의 가치에 대한 우려로 끝내고 있다.

다른 방송국과 달리 SBS 뉴스의 마지막 꼭지에서는 간척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기사의 처음에 천문학적 숫자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정보를 제시했는데, 이것 역시 시청자들에게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와 우려를 심어 준다. 기사의 중간에서는 새만금 간척 사업 현장을 묘사하면서 텍스트의 마지막에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이 중단된 것은 환경 문제 때문이었고, 앞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추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 계속을 외치는 현지주민들의 목소리를 언급하지만 단 한 줄로 마무리하고 인터뷰도 지식이나 지위면에서 떨어지는 아주머니와 했으며, 인터뷰 내용도 새만금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세 방송국에서 보도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세 가지 뉴스를 살펴보면, 각 기사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뉴스의 전체적 내용에서 KBS의 뉴스가 MBC와 SBS 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해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어떤 어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화자나 필자의 관점이 드러날 수 있다. 텍스트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얼마나 제시하는지, 텍스트에서 어느 위치에서 정보를 제시하는지에 따라 필자나 화자의 의견과 입장이

드러나는 것이다. 즉 기사의 내용과 순서, 기자의 평가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과 정보의 비중은 시청자들의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해 봄으로써 텔레비전 뉴스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현실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생각을 수정할 수 있다. 뉴스를 비판적으로 읽음으로써, 특히 언어적인 면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정보의 수동적 수용에서 벗어나 정보의 적극적 이해와 비판, 구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4. 비판적 뉴스 시청의 교육적 함의

보고는 흔히 중립성·객관성을 지닐 것이라 기대된다. 다시 말해, 보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특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처럼(voiceless)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보고는 작자의 판단이나 의사를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립성은 단지 기술상의 기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편리한 가장에 지나지 않는다. 대상을 파악하고 기술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두를 다 보여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상의 어떤 부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가, 그 부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등의 문제에서 작자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정정순, 2000:604).

텔레비전 뉴스도 마찬가지이다.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과 전달방식에 관여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영상언어와 문자언어, 음성언어가 어우러져 텔레비전 뉴스를 구성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 내용을 과장할 수도 있고, 문자언어 즉 자막을 이용하여 시청자들이 해석을 내리기 전에 벌써 뉴스의 요점과 방향을 전달하기도 한다. 뉴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뉴스의 비공정성으로 이끌거나 이끌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자의 태도와 편집자의 태도, 그밖에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뉴스는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TV뉴스에 대한 비판적 읽기 교육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비판적 뉴스 읽기는 수동적 수용자에서 해석자와 비판자로서의 적극적 수용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 뉴스에 대한 교육은 다양한 차원의 기호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에서부터 그 메시지의 의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뉴스에서 언어 사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뉴스의 언어 기호 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의도를 파악하며, 메시지의 형식과 내용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뉴스의 메시지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은 미디어 교육의 한 부분이며, 국어 교육에서의 비판적 이해와 상통하는 부분이다.

미디어라는 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도 더 이상 미디어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미디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 환경 속에 숨쉬고 있는 주체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으로 간주된다.

미디어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의 구조와 수업 활동은 여러 가지 점에서 국어과 교육과 유사하다. 인간의 의사소통 활동이며 과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미디어 교육과 국어 교육은 그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국어 교육은 지금까지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목표로 삼아 왔다. 7차 교육과정 또한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창의적 언어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음성언어 텍스트이든지 문자언어 텍스트이든지 간에,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하고 소통시키고 학습하

는 것은 국어 교육의 핵심이다. 즉 국어 교육은 정보의 이해와 생산, 소통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문식성을 길러 주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는데, 언어 교육에서 문식성의 개념은 점점 확장되어 왔다. 처음에 문식성은 단순히 문자를 알고 다룰 줄 아는 능력이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그리고 사고의 능력으로 문식성 개념은 확장되어 왔다.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 전달과 이해, 소통은 단순히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비디오, 컴퓨터 등 여러 다양한 미디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책을 읽는 시간보다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정보의 획득도 그러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식성의 개념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즐기고 생산하는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국어 교육에서의 비판적 읽기와 관련을 맺을 수 있으며, 미디어를 제작한다는 것도 국어 교육에서의 표현 교육과 상통할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장르의 다양한 언어 문화적 특성을 추출하는 것은 국어 교육에서 이해와 표현 교육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홍규·이종민, 「텔레비전 뉴스개발을 위한 수용자 연구」, 한국주관성연구학회, 1999.
- 박갑수 외, 『방송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2001.
- 서정섭, 『언론과 언어』, 북스힐, 1999.
- 원용진, 『텔레비전 비평론』, 한울아카데미, 2000.
- 윤재홍, 『TV뉴스 취재에서 보도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이강수, 『수용자론』, 한울아카데미, 2001.
- 이재경·김학희, 『방송뉴스 취재와 보도』, 나무와 숲, 1998.
- 전석호 역, 『미디어 소사이어티(Media/Society-Industries, Images and Audiences)』, 사계절, 2001.
- 최창섭, 『언어와 환경』, 성바오로출판사, 1986.
- 팽원순, 「TV 뉴스의 特性에 관한 研究」, 『논문집』 13-1, 한양대학교, 1979.
- 황인성 편저, 『텔레비전 문화 연구』, 한나래, 1999.

■ Abstract

Critical Watching of the Television News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Kim, Jeong-ja

They think that the television news is impartial and objective. But the television news is not. Because of attitude of newsmen and editor, situation, context etc, the event reported through the television news is not the event that happened in the world. Therefore, the TV audience must watch critically the television news and have judgment.

This paper attempts to look into the distinctive quality of television news and to analyses the language of the television news. In this paper I analyses contents and language of news on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reported in KBS MBC SBS on 25. 5. 2001. Judging from word selection, amount and place of information in news text, the KBS news is showed well meaning for reclamation work relatively in comparison with the MBC news and the SBS news.

We must teach students to interpret the message of news critically. Students must develop their ability to analyses language usage of television news and grasp the intention of the news and evaluate the form and content of the news. This education is a aspect of media education and is similar to critical reading comprehens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